

<동정자료>

김경욱 차관, “급변하는 미래 교통 환경 대비 중요성” 강조 7일 교통연구원서 미래 교통 이슈 · 정책방향 심도있는 논의, 호혜의 협력 당부

-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11월 7일(목)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 ‘미래 모빌리티 혁명’에 대비한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, 각종 교통 분야 현안 해결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.

 - 이날 간담회는 ‘내 삶을 바꾸는 교통정책 발굴’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분야 연구기관들과의 릴레이 정책간담회(상상포럼)의 일환으로, 국토교통부와 교통연구원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.

-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“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‘모빌리티 혁명’을 주목하고 있으며, 이미 자동차, 물류, 정보통신(IT)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 중”이라고 말했다.

 - 특히, “고속화, 자율주행, 친환경차, 교통 빅데이터 등이 가져올 미래 교통 이슈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”면서, 단순히 이동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, ‘삶의 격차’, 다양한 산업의 ‘지속가능한 성장’ 문제임을 고려할 때,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”이라며 업역을 넘어선 호혜의 협력을 강조했다.

- 아울러, “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신구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계 간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혁신성장 성패를 결정할 바로미터”라면서, 세심한 갈등 관리와 상생 방안 제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

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- 마지막으로 “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2019. 11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